

## 國立公園運動의 先驅者

— 故 金允基會長의 逝去를 哀悼하며 —

國立公園協會 會長등을 歷任하시면서 自然保護, 特히 國立公園運動의 先驅者로서 몸바쳐 오신 故 金允基會長의 逝去를 哀悼해 하는 會員・讀者諸位와 함께 이자리를 빌려 故人의 生涯를 回想하며 掌握하여 冥福을 빌고져 합니다. — 編輯者 —

### 略歷紹介

故 活眼 工学博士 金允基先生の 略歷을 간추려 살펴보면 先生께서는 大韓帝國의 國運이 衰頹하여 社稷은 內夏外患으로 風雲에 휘말린 무렵 1904年 3月 22日 全北金提郡萬頃面大東里에서 우리나라 名門인 慶州金氏 炳喜先生의 二男四女中 長男으로 誕生하셨습니다. 祖先傳來의 儒門으로서 幼年期에 漢學을 修習하시고 民族開化의 時代的 進出에 따라 1920年 大邱高等普通學校를 거쳐 靑雲의 뜻을 세우고 日本留學에 登程하여 私學의 名門인 早稻田大學 理工學部에서 建築工學의 淵奧를 專攻하시고 1928年에 卒業 하셨습니다. 歸國하시고는 鐵道局 工務課에 入仕하여 實務技術에 練磨와 研鑽의 보람이 있어 卓越한 力量을 發揮 하셨으며, 祖國光復後로는 當時의 社會的 不安定한 與件下에서 온갖 隘路를 克服하시고 오직 韓國鐵道의 發展을 위해 精魂을 기우리신 赫赫한 功績으로 1954年 交通部 次官에 昇進 하신바 있으나 1957年 一但 官界를 떠나시고 1958年 大韓住宅營團 理事長에 就任하셨습니다.

그러나 先生의 德望과 技術은 國家 中興大業의 機軸으로서 드디어 官界頂點에 登用되는 機會가 到來하니 1963年 交通部長官에 就任하시게 되어 宿望의 交通經綸으로 交通發展에 多大한 貢獻을 寄與하시고 1966年 政務擔當 無任所長官에 이어 同年 建設部長官에 다시 1967年에 無任所長官을 歷任하시는 등 燦然한 官祿을 遍歷하셨던 것입니다. 先生께서는 이와같은 官職外에도 教學活動으로 서울大學, 漢陽大學, 德成女大의 講師 및 航空大學長등을 歷任하여 後學養成에 尽力하셨고 社會公共活動으로는 高等考試委員, 對日請求權 管理委員,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委員, 中央都市計劃委員, 서울特別市 文化委員會 建築分科委員長, 大韓建築學會長, 大韓技術 總聯合會長, 產業開發委員會 顧問, 國會議事堂 建立委員會 技術諮問委員長, 韓國建築家協會長, 原子力院 顧問, 統一主體國民會議 運營委員, 大韓国土計劃學會 理事 및 새마을 技術奉仕團 中央會長등을 歷任하셨으며 特히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長을 十餘年間 歷任하시는 동안 科學會館建立을 完成시키고 우리나라 科學技術發展에 至大한 功績을 남기시고 先生이 別世하실때 까지도 行政計劃委員會 委員, 國土建設綜合計劃 審議委員, 韓國產業開發研究所長 및 韓國國立公園協會長等に 在任하셨습니다.

이와같이 先生께서는 學者로서 行政家로서, 國家產業의 技術發展을 위하여 寄與하신 不朽의 業績에 對하여 1964年 漢陽大學校로부터 名譽工學博士의 榮譽가 授與되고 1952年 大統領表彰, 1954年 서울市文化賞, 1955年 美合衆國自由勳章, 1968年 淸조근조勳章, 泰國一等백상勳章을 그리고 1978年에는 產業部門 最高의 名譽인 金塔產業勳章까지 受賞된 恩典은 오로지 先生一代의 偉大하신 功勳을 昭明하게 밝힌 証表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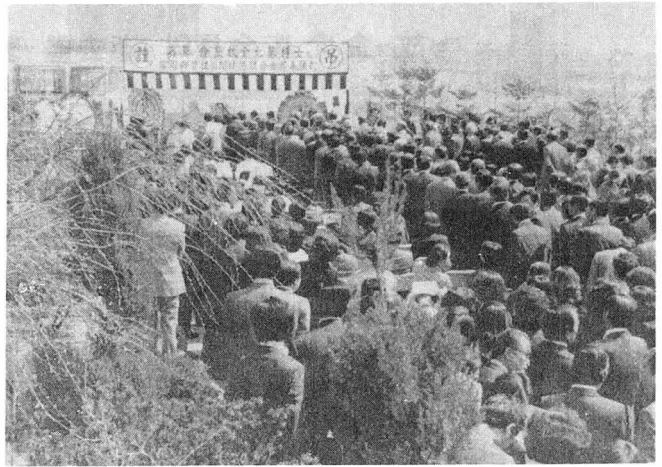
그러나 先生께서는 지난 3月中旬 急患으로 臥席하신바 있었으나 平素의 健康으로 미루어 바로 回春하실 것으로 믿었으나 哀惜하게도 4月 2日 忽然히 上天의 召命에 따라 享年 75歲로 殞命하셨습니다.

한편 先生께서는 1924年 李英子女史와 結婚하신 後 55年間을 和睦團欒하게 偕老하셨고 膝下에 長男 鐸一氏를 비롯 3男 4女를 모두 成婚을 마쳐 親外孫이 28名에 이르는 多福한 家庭을 남기셨으니 이른바 壽, 富, 康, 寧, 修好德, 考終命의 人生五福을 先生께서는 具全하신 生涯를 마치셨던 것입니다.

葬禮委員 慎 武 晟

弔 辭

嗚呼 슬프고 悲痛하옵니다.  
 金 允 基先生任이시어 /  
 最近까지도 것처럼 建康하  
 시고 부지런하시던 先生任이  
 忽然히 우리들 곁을 떠나시  
 다니요. 믿을수가 없읍니다.  
 옛부터 人生無常이라 하지  
 만 先生의 永眼이 우리들에  
 게 이 같이 뼈아픈 虛無와  
 가늘 길 없는 슬픔을 가져다  
 줄 줄은 미처 몰랐읍니다.



〈 故人의 殯所에 줄이은 弔客 〉

活眼 金 允 基先生任 /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정녕 이 世上을 버리고 저 世上으로 가시었다는 말입니까?  
 저의 人生에 있어서 가장 尊敬하는 先輩이시며 科學技術人이시며 有能한 行政家이신  
 金 允 基先生任의 英頭앞에 이렇게 서 있으려니 불현듯 先生任과의 交友 四十年이 한꺼번에  
 눈앞에 몰려옵니다.

先生任은 近者에 이르러서도 活動의이시며 어떠한 일도 創意的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골  
 물하시고 또 그것을 樂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든 親知同僚들은 恒常 健康하실 것으로만  
 生覺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저희들의 不察이었읍니다.

이제 先生任의 그 重厚하시고 圓滿하시며 寬大하신 人格과 卓越하신 經綸을 다시는 接할  
 道理가 없게 되었으니 이 크나큰 슬픔을 무엇으로 堪當하오리까.

先生任이시어 /  
 先生의 一生은 이 나라 工學界의 大元老로서 科學技術의 發展을 이룩 하시는데 求心的인  
 役割을 하였고 篤實한 僉弟子로서 佛教의 大道를 몸소 實踐하셨습니다.

先生任께서는 全北 金堤에서 나서서 어려서 부터 聰明하시고 才能이 뛰어나 大邱高普를  
 거쳐 日本早稻田大學 工學部에서 建築工學을 專攻하신 우리나라 技術界의 先驅의 存在였읍니다.

大學卒業과 同時에 朝鮮總督府 鐵道局에서 解放때까지 韓國人 技術者로서 日本人들을 壓  
 倒하여 名聲을 날리셨으며 解放後에는 祖国近代化作業의 先頭走者로서 交通部 資材局長, 施  
 設局長, 次官을 거쳐 1963年에 交通部長官으로서 우리나라 交通行政에 크나큰 功績을 남  
 겨 놓으셨읍니다.

특히 저희들이 잊을 수 없는 것은 6.25 動亂때 莫重한 鐵道輸送의 任務를 完遂하였고 젃  
 더미가 된 鐵道施設 責任者로서의 卓越하신 指導力을 발휘하셨습니다.

建設部長官 無任所長官 初代 統一主体國民會議 運營委員으로서 國土建設, 經濟開發 國民  
 總和等 先生께서 이룩한 그토록 많은 業績은 바로 오늘의 韓國을 일으킨 주춧돌 이었읍니다.

70年 3月 國務委員 자리에서 물러나신 後에도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 會長에 就任  
 하시면서 만 9年 동안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代辯者로서 科學技術人의 地位向上과 科學技  
 術의 發展을 위하여 心血을 기우리셨읍니다.

그 동안 韓國産業開發研究所長, 行政改革委員會 委員 國立公園協會會長, 새마을 技術奉仕團中央會長, 國土建設審議會委員等 政府 여러機關의 諮問에 應하시면서 바쁜 일과 속에서 喜壽를 한 해 앞두고 끝까지 일하시다가 幽明을 달리 하셨으니 우리들의 슬픔은 더욱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八十年代 中半을 目標로 高道産業國家로 發展해 가고 또 生活의 科學化가 絶실하게 要望되는 이 重要한 時期에 先生任과 같은 行政과 技術을 兼備하신 指導者께서 오래도록 生存하시어 젊은 科學技術人들의 갈 길을 일러 주셔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우리들을 버리시고 忽然히 저 世上으로 가시나이까?

先生任 /

지금 先生任의 英蹟 앞에서 生時에 先生을 기리던 數 많은 内外人事들과 先生이 平素에 아껴 사랑하시던 後學들이 슬픔을 억누르며 先生의 名복을 빌고 있습니다.

先生任을 마지막 보내는 이 마당에 우리들 모든 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會員들은 先生任이 남기신 그 清廉하심과 誠實하심을 본받아 祖國의 科學技術發展에 있는 힘을 다 할것을 盟誓하여 先生任께서 生前에 못다 펴고 가신 遺志를 繼承해 나가고져 합니다.

삼가 先生任의 靈前에 머리 숙여 永遠한 冥福을 비읍니다.

先生 이시어 /

부디 부처님결으로 平安히 가시옵소서.

1979年 4月 4日

葬禮委員長 安京模

## 追悼辭

지금은 하늘에서 푸르름에 쌓여있는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生의 營爲를 俯觀하고 계시는 金允基先生님의 英靈이시어 /

先生님이 居歿하시는 世界와 저희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世界사이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架橋를 実感할 수 없는 저희들의 不足을 지극히 슬퍼합니다.

先生님의 靈魂앞에 合掌하고 仰視하고 있는 多數의 진지한 눈초리를 보시옵소서. 幽明을 달리했다는 事實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이처럼 큰 슬픈 苦痛을 주는 것이옵니까. 그것은 恒常 微笑를 머금고 慈悲에 차있는 音聲에 직접 接할 수 없는 그것때문 이옵니까. 따스한 体温을 간직한 先生님의 손을 잡아볼 수 없는 그것 때문이겠옵니까.

先生님이 이世上에 계시때의 빛나면서도 지극히 庶民的 人情에 넘친 高貴한 品性은 先生님의 榮光의 全部였다고 봅니다.

金堤의 名門家에 태어나 일찍 早稻田大學 理工學部를 卒業하시고 交通部, 建設部, 그리고 無任所의 長官으로서 우리民族이 아직은 彷徨하고 있을때 安住의 터전을 構築하는데 큰 功을 세우시고 오늘의 國字繁榮의 礎石이 되신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大學校, 航空大學 등 大學教育에 이바지 하신 情熱과 우리나라의 各 學術團體를 總集結시켜 一系不亂의 體制下에 두시고 이를 爲해서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會館을 不毛의 環境에서 建立運營하신 것은 先生님의 뛰어난 領導力과 봄바람같은 人格의 能力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先生님이 만드시고 기틀을 마련하신 韓國國立公園協會는 봄날의 새싹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開拓地의 先驅로서 開葉하고 있습니다만 先生님이 뿌리신 培土로서 큰 싹으로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해서 이에 灌水하겠나이다. 全國土의 公園化를 恒常 잔잔한 音聲으로 說破하신 그 精神은 지금 自然保護 또는 環境淨化라는 口號 속에 담겨져서 先生님의 遺德으로 開花하고 있나이다.

英靈이시여, 月精寺의 밤을 기억하시나йка. 法堂의 촛불이 기름기를 더해서 연꽃처럼 피어오르던 그날저녁 그 향기로왔던 두릅어랑 각종 山菜의 香氣가 아직 입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先生님의 옛 이야기도 컷속에 그대로 남아 있나이다. 그 이야기가 왜 다시 繼續되지 못하고 있나йка.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의 사연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 주옵소서.

五台山에는 눈속을 뚫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때의 아네모네의 꽃이 지금도 美의 絶頂을 이루고 있나이다. 이 꽃을 보시옵소서. 이 꽃은 先生님의 뒤를 따라서 上元寺를 향하던 우리들의 꽃이 아니었습니까. 이 꽃들도 先生님을 보고 싶어하고 있나이다.

英靈이시여, 法住寺의 저녁을 기억하시나йка. 강당에서 그리고 방에서 나눈 無盡하였던 國立公園의 話題는 강물처럼 흐르지 않았습니까. 소나무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소리를 限없이 아름다운 音響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음악을 듣고 계시나йка. 그 뜰의 피나무의 잎이 信仰의 新綠을 뽐내고 있나이다. 이것을 보옵소서. 그리고 그 산길을 저희들과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今年的 國立公園大會를 先生님은 우리들과 가슴부풀게 기다렸습니다. 알차고 찬란한 生涯의 한토막이 裝飾될 것을 期待시켜 놓으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나йка. 그곳에도 空氣와 햇볕과 色彩와 소리가 있을 것을 믿고 있나이다.

慈悲스러운 金允基博士님의 英靈이시여, 저희들의 외침을 들어 보시옵소서.

이제 눈물을 건우겠나이다. 英靈이 저희들의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微笑와 人情과 体温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느때까지나 멀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先生님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꽃피게 하겠나이다. 어느때가 英靈에 接하게 될 때 그동안의 經過를 상세히 말씀드리겠나이다. 甞 人生은 早晚間 한곳에 모여서 永遠의 生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므로 슬픔을 가시게 하겠나이다.

다시만날 그날까지 在天의 英靈이시여 지극히 편안하소서.

지금 世上에는 薰風이 불고 있나이다. 香氣로운 이 바람이 先生님의 곳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빕니다.

英靈이시여. 그 世上의 樂이 무궁하소서.

1979年 5月

任 慶 彬 (서울大農大 教授)